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1. 7. 23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- EU, PKK 포함 21개 테러단체 6개월간 제재 연장
  - 7.19 EU 이사회는 'PKK(쿠르드 노동자당)'와 'DHKP-C(인민혁명해방군/전선)'를 등 21개 무장단체와 개인 14명에 대한 6개월 제재를 연장, 관련자 및 단체 대상 자금 제공 금지와 금융자산 동결 제재를 포함

#### 미주

- 美, 쿠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對外정책 再검토 추진
  - 7.14 美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△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△여행금지 완화 △체류 자국민 대상 美본토 가족의 송금 허용 완화 등 對쿠바 정책 완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再검토하고 있다고 발표
    - \* 백악관 대변인은 “對쿠바 정책 再검토와 관련해, 해당국 국민의 정치, 경제적 행복에 미칠 영향 역시 고려하고 있다”고 부언
- 美, 반체제 인사 납치 시도 혐의 이란 정보요원 기소
  - 7.14 美 뉴욕 맨해튼 검찰은 자국 내 활동 反이란 체제 인사(마시 알리네자드, 44세의 이란출신의 미국적 남성)를 납치·본국 강제 송환하려 한 이란 정보요원 혐의자 4명을 체포·기소
    - \* 이란인 알리네자드는 '15년 미국 입국후 反이란 활동을 시작, '19년 美국적 취득
- 美 법무부, 민주당 당사 폭파 모의 남성 기소(연합뉴스)
  - 7.16 美 법무부는 지난 1월 「트럼프」前대통령의 낙선에 분노해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소재 민주당 당사 폭파 모의 혐의로 체포된 「이언 벤저민 로저스(45)」와 「재러드 코플랜드(37)」 기소를 발표
    - \* 검찰은 同人들이 「트럼프」前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백인 우월주의와 권력 유지를 위해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라고 부언

## 아 · 태평양

### ○ 아프간, 탈레반과 카타르서 평화협상 재개

- 7.18 아프간 정부는 미군 철수 후 내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카타르 도하에서 탈레반과 평화 구축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으며, 살해 행위를 막고 평화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를 밟고 있다고 발표
- \* 탈레반 지도자는 “탈레반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협상에 노력할 것”이라고 부언

### ○ 탈레반, 연합군 철수 후 아프간 영토 절반 이상 장악

- 7.18 탈레반은 연합군이 철수하기 시작한 5월 이후 본격적으로 점령지 확장을 시작하여 최근 아프간 전체 400개 지역 중 절반 이상인 210개 이상을 장악, 이 과정에서 221명의 사상자와 11,200명의 난민 발생
- \* 현재 약 80개 지역에서 탈레반과 정부군 교전이 진행 중

### ○ 中, 파키스탄 버스 폭발사고 ‘중국인 대상 공격’ 규정

- 7.14 中 외교부는 파키스탄 북부에서 버스 폭발사고로 중국인 기술 근로자 9명 포함 13명이 사망하고, 28명이 부상당한 것과 관련 ‘중국인에 대한 공격’으로 규정하고 파키스탄 당국의 철저한 조사 및 자국민에 대한 안전 보장 촉구
- \* 파키스탄은 '15년부터 中 경제협력 프로젝트인 ‘일대일로(一帶一路)’에 참여하면서 자국 내 反中감정 확산

## 중 동

### ○ 이라크, 1년前 피살된 대테러 전문가 암살 용의자 체포

- 7.16 「무스타파 알카드히미」 이라크 총리는 ISIS·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과 안보 문제 전문가로 이라크 정부에 대테러 정책을 자문했던 「히삼 알하시미」 암살(20.7월)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
- \* AFP통신은 이라크에서 지난 1년간 많은 활동가들이 암살되었지만, 용의자가 체포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

아프간 탈레반,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단 납치 및 살해

- '07.7.19 샘물교회(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) 소속 단기 선교단 23명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이동 중 탈레반에 의해 피랍
- 탈레반은 인질 인계 조건으로, △ 아프가니스탄 주둔 한국군 철수 △ 아프간 정부가 체포해 구금중인 동료 조직원 전원 석방을 요구  
\* 「베네딕토 16세」 교황은 탈레반의 행위를 강력 비난하고 인질 즉시 석방을 촉구
- 이런 가운데, 탈레반은 6일 후인 7.25 인질 석방 교섭 결렬을 이유로 피랍자 1명을 죽인 후, 7.30에는 협상 시한이 지났다고 1명을 추가 살해
- 한편, 인질살해가 발생하자 UN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탈레반의 잔학 행위를 강도 높게 규탄하며 피랍자 즉각 석방을 촉구
- 결국, 우리 정부는 8.2 아프가니스탄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하는 한편, 탈레반과의 지속 협상을 통해 8.30까지 생존 인질 전원을 인수  
\* 탈레반은 생존자 21명을 3차례(8.13, 2명/8.29, 12명/8.30, 7명)에 걸쳐 석방

< 탈레반(Taliban) >

- **(결성)** 아프간 공산정권 붕괴('92.4) 후 시작된 내전중 「몰라 오마르」가 '94.8 칸다하르州 마드라사(이슬람 神學校) 학생들을 규합하여 결성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정치조직  
※ 테러단체 지정 : '13.5 캐나다 / UN·美·英 등은 평화협상을 고려해 테러단체로 미지정
- **(활동)** '96.9부터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통치했으나 '01.10 아프간戰 개전으로 축출된 이후, 게릴라戰·테러 등으로 저항하다 '20.2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  
- 탈레반은 미군 철수계획 발표('21.4.14) 직후 “우리가 승리했다”고 선언하고, 근거지인 남부를 벗어나 북부·서부지역에서 점령지를 급속히 확대 中  
- 최근('21.7.9), 러시아를 방문한 탈레반 대표단은 “아프가니스탄의 85% 이상을 장악했다”며 “ISIS를 몰아내고, 주변국을 위협하지 않겠다”는 성명서 발표